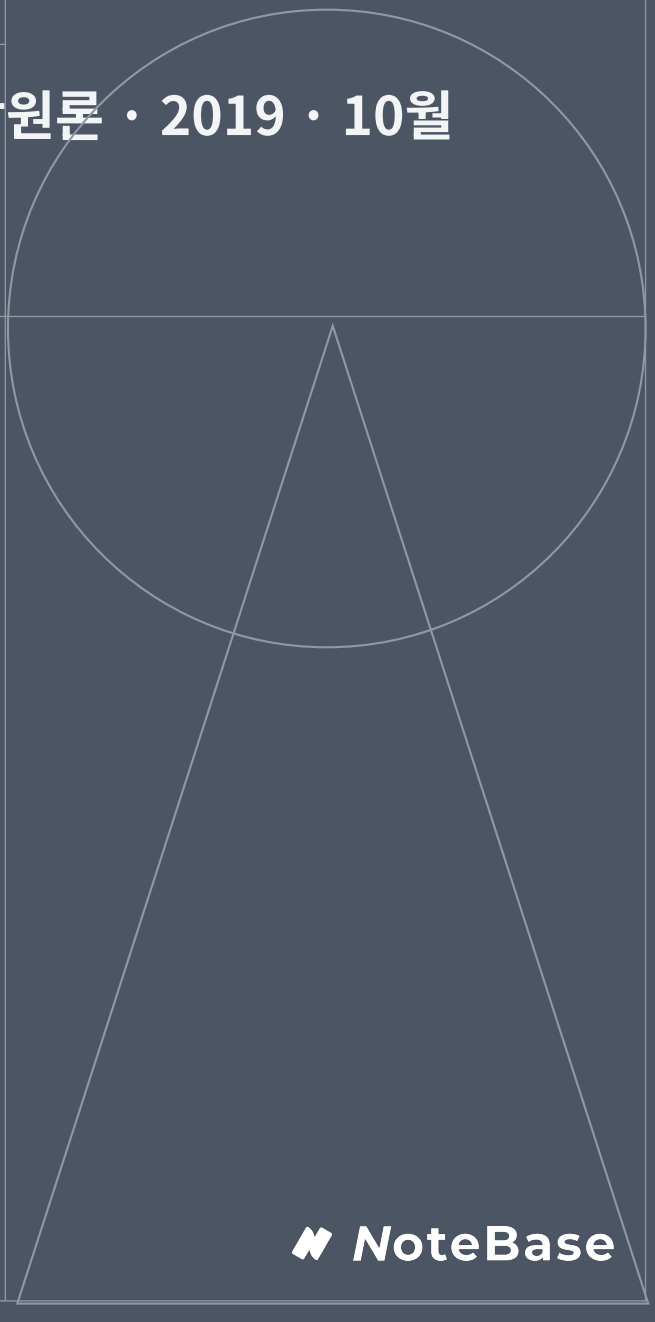
#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경제학원론 · 2019 · 10월



NoteBase

#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경제학원론 · 2019 · 10월

**공무원/서울시/7급 · 경제학원론 · 2019 · 10월**

**문 1. 주어진 소득으로 밥과 김치만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있다. 동일한 소득에서 김치가격이 하락할 경우 나타날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밥은 열등재라고 가정한다.)**

① 밥의 소비량 감소

② 김치의 소비량 감소

③ 밥의 소비량 변화 없음

④ 김치의 소비량 변화 없음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할 때 다른 재화의 수요가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통해 어떻게 변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대체효과는 상대가격이 하락한 재화를 더 소비하고 다른 재화를 덜 소비하려는 효과이다.
소득효과는 가격 하락으로 실질소득이 늘어난 것처럼 느껴져 소비가 바뀌는 효과이다.
열등재는 소득이 늘면 소비가 줄어드는 재화이다. 이 문항에서는 밥이 열등재이므로 김치 가격 하락으로 실질소득이 늘면 밥 소비는 더 줄어드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선지별 해설**

① O: 김치 가격이 하락하면 김치가 상대적으로 싸져 밥 대신 김치를 더 선택하는 대체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밥은 열등재이므로 실질소득 증가에 따른 소득효과도 밥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두 효과가 모두 합쳐져 밥의 소비량은 감소한다.
② X: 틀린 표현은 "김치의 소비량 감소"이다. 김치 가격이 하락하면 적어도 대체효과 때문에 김치 소비는 증가 방향으로 움직인다. 올바르게는 "김치의 소비량 증가"이다.
③ X: 틀린 표현은 "밥의 소비량 변화 없음"이다. 밥은 열등재이므로 김치 가격 하락 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모두 밥 소비 감소 쪽으로 작동한다. 올바르게는 "밥의 소비량 감소"이다.
④ X: 틀린 표현은 "김치의 소비량 변화 없음"이다. 가격이 내려간 재화는 상대가격이 낮아져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올바르게는 "김치의 소비량 증가"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열등재라는 조건을 밥에만 적용해야 하는데, 이를 놓치면 김치 가격 하락의 대체효과만 보거나 소득효과의 방향을 반대로 잡기 쉽다. 특히 ③은 열등재 조건을 무시하면 그럴듯해 보이는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가격이 변한 재화가 무엇인지 보고 대체효과의 방향을 잡는다. 그다음 열등재인지 정상재인지 확인해 소득효과의 방향을 붙인다. 두 효과가 같은 방향이면 최종 변화도 그 방향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열등재인 다른 재화가 있을 때 한 재화의 가격 하락은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같은 방향이면 변화가 분명해진다.

NoteBase

**문 2.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급곡선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일 때,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1이다.

② X재와 Y재 간 수요의 교차탄력성이 1보다 작을 때, 두 재화는 보완재이다.

③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재화를 정의하는 범위와 탄력성 측정 기간에 영향을 받는다.

④ 기펜재(Giffen goods)에 대한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영(0)보다 작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공급의 가격탄력성, 수요의 교차탄력성, 수요의 가격탄력성, 수요의 소득탄력성의 부호와 의미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 변화율이며, 원점을 지나는 직선 공급곡선에서는 모든 점에서 1이다.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다른 재화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 변화의 반응으로, 양수이면 대체재이고 음수이면 보완재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재화의 범위가 넓은지 좁은지, 대체재가 많은지, 측정 기간이 짧은지 긴지에 따라 달라진다.
기펜재는 열등재의 한 유형이므로 소득이 늘면 수요가 줄어 소득탄력성은 0보다 작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공급곡선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면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각 점에서 항상 1이다. 가격과 공급량이 같은 비율로 변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교차탄력성이 1보다 작을 때"이다.
보완재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1보다 작은지 여부가 아니라 부호이다. 실제로는 교차탄력성이 0보다 작을 때 두 재화는 보완재이다. 0과 1 사이의 양수라면 여전히 대체재일 수 있다.

③ O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재화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대체 가능성이 달라지고, 측정 기간이 길수록 소비자가 대체 행동을 더 할 수 있어 보통 더 탄력적으로 나타난다.

④ O
기펜재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열등재이므로 소득탄력성은 음수이다. 따라서 0보다 작다는 설명은 맞다.

**오답 포인트**

②는 교차탄력성의 크기와 부호를 일부러 섞어 놓은 선지이다. 보완재와 대체재 구분은 절댓값이나 1과의 비교가 아니라 부호로 판단한다는 점을 놓치면 틀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탄력성 문제에서는 먼저 어떤 탄력성인지부터 구분한 뒤, 교차탄력성은 부호, 소득탄력성은 정상재·열등재 여부, 가격탄력성은 대체 가능성과 시간, 공급탄력성은 곡선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교차탄력성은 부호로 재화 관계를 본다. +면 대체재, −면 보완재이다.

NoteBase

**문 3. <보기>의 경우에서 사회 전체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세탁량은?**

<보기>
• 의류를 세탁하는 한계 편익(MB)과 사적인 한계 비용($MC_P$)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MB = 200 - Q$ $MC_P = Q$
• 사적인 한계 비용과 더불어 세탁에 따른 외부 한계 비용이 세탁량($Q$)당 10원이 발생한다.

① 0
② 55
③ 95
④ 1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세탁의 한계 편익과 외부한계비용을 포함한 사회적 한계비용을 같게 두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세탁량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한계 편익은 $MB = 200 - Q$이다. 사적인 한계비용은 $MC_P = Q$이다. 외부 한계비용은 세탁량 $Q$당 10원이다.
구해야 할 값: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세탁량 $Q^*$이다.
주의할 조건: 외부 한계비용 10원을 사적 한계비용에 더해 사회적 한계비용을 만들어야 한다.

**사용할 공식**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세탁량은 한계 편익과 사회적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결정된다.
$MB = MSC$
여기서 $MSC = MC_P + MEC$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문제는 사적 비용 외에 세탁량당 10원의 외부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했으므로, 개인 기준이 아니라 사회 전체 기준의 한계비용으로 비교해야 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사회적 한계비용을 구하면 $MSC = Q + 10$이다.
2. 효율 조건 $MB = MSC$를 대입하면 $200 - Q = Q + 10$이다.
3. 정리하면 $190 = 2Q$이므로 $Q = 95$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Q = 0$이면 $MB = 200$, $MSC = 10$이어서 두 값이 같지 않다. 올바르게는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세탁량은 0이 아니라 95이다.

② X

- $Q = 55$이면 $MB = 145$, $MSC = 65$이어서 아직 한계 편익이 더 크다. 세탁을 더 늘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유리하므로 효율량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55가 아니라 95이다.

③ O

- $Q = 95$이면 $MB = 105$, $MSC = 105$로 정확히 일치한다. 외부비용까지 반영한 사회적 최적 세탁량이다.

④ X

- $Q = 100$이면 $MB = 100$, $MSC = 110$이어서 사회적 한계비용이 더 크다. 100은 외부 한계비용 10원을 빼먹고 $MB = MC_P$만 맞춘 값이다. 올바르게는 100이 아니라 95이다.

**오답 포인트**

가장 흔한 오답은 ④ 100이다. 이는 외부 한계비용을 무시하고 사적 최적 조건인 $MB = MC_P$만 적용했을 때 나오는 값이다. 이 문항의 핵심은 외부비용이 있으면 사적 한계비용이 아니라 사회적 한계비용으로 비교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외부비용이나 외부불경제가 보이면 먼저 $MSC = MC_P + MEC$를 만든 뒤 $MB = MSC$를 세운다. 그다음 계산 결과가 사적 최적량보다 작아지는지까지 함께 점검하면 판단이 안정된다.

**암기 포인트**

외부비용이 있으면 사회적 최적은 $MB = MSC$, 그리고 MSC=사적 한계비용+외부 한계비용이다.

NoteBase

**문 4. 갑국은 두 재화 X, Y만을 생산할 수 있다. 갑국은 생산가능곡선이 직선이며, X재만 생산하면 40단위, Y재만 생산하면 20단위를 생산할 수 있다. 국제시장에서 X재와 Y재가 동일한 가격에 거래될 때, 갑국의 선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갑국은 두 재화 모두를 소비하는 것을 선호한다.)**

① X재만 생산하여 교역에 응한다.

② Y재만 생산하여 교역에 응한다.

③ X재, Y재를 모두 생산하여 교역에 응한다.

④ 교역에 응하지 않는다.

**정답 1번**

###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생산가능곡선의 기울기에서 기회비용을 구하고, 이를 세계상대가격과 비교하여 어느 재화에 비교우위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 핵심 개념

기회비용은 한 재화를 1단위 더 생산할 때 포기해야 하는 다른 재화의 양이다.
비교우위는 더 낮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재화에 존재한다.
세계가격이 두 재화에서 동일하면 세계상대가격은 $P_X/P_Y = 1$이고, 국내 기회비용과 이 값을 비교해 특화 방향을 정한다.

### 선지별 해설

1번: O. X만 40단위, Y만 20단위를 생산할 수 있으므로 X 1단위의 기회비용은 Y 0.5단위이다. 그런데 국제시장에서는 X 1단위를 Y 1단위와 교환할 수 있으므로, 갑국은 국내에서 X를 상대적으로 싸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X에 비교우위가 있어 X재만 생산해 교역에 응한다.
2번: X. Y 1단위의 기회비용은 X 2단위이다. 그런데 국제시장에서는 Y 1단위를 X 1단위와만 교환하므로 Y를 국내에서 만드는 것은 상대적으로 비싸다. 틀린 표현은 'Y재만 생산하여'이고, 올바르게는 'X재에 특화하여'이다.
3번: X. 생산가능곡선이 직선이면 기회비용이 일정하고, 세계가격이 국내 기회비용과 다르면 수입 극대화를 위해 한 재화에 완전특화하는 것이 유리하다. 틀린 표현은 'X재, Y재를 모두 생산하여'이고, 올바르게는 'X재만 생산하여'이다.
4번: X. 갑국은 X 1단위를 국내에서는 Y 0.5단위만 포기하면 되는데 국제시장에서는 Y 1단위를 얻을 수 있으므로 교역 이득이 존재한다. 틀린 표현은 '교역에 응하지 않는다'이고, 올바르게는 'X재에 특화하여 교역에 응한다'이다.

NoteBase

### 오답 포인트

세계가격이 동일하다는 말을 두 재화를 반반 생산한다는 뜻으로 오해하면 3번으로 흐르기 쉽다. 핵심은 소비선호가 아니라 국내 기회비용 0.5와 세계상대가격 1의 비교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생산가능곡선의 절편으로 기회비용을 계산한 뒤, 그 기회비용보다 세계시장에서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재화를 찾으면 된다. 그 재화에 비교우위가 있으므로 직선 PPF에서는 그 재화에 완전특화한다.

### 암기 포인트

국내 기회비용보다 세계교환비율이 유리한 재화가 비교우위 재화이고, 직선 PPF에서는 그 재화에 특화한다.

NoteBase

**문 5. 갑국의 생산함수는 $Y = AK^{0.3}L^{0.7}$이다. 노동량 증가율은 2%, 자본량 증가율은 9%이고, 총생산량은 5% 증가하였다면, 이때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단, $Y$는 총생산량, $A$는 총요소생산성, $K$는 자본량, $L$은 노동량을 의미한다.)**

① 0.8%

② 0.9%

③ 1.0%

④ 2.0%

**정답 2번**

###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콥더글러스 생산함수의 성장회계식 $g_Y = g_A + 0.3g_K + 0.7g_L$를 이용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구하는 문제이다.

### 조건 정리

주어진 값: 노동량 증가율 2%, 자본량 증가율 9%, 총생산량 증가율 5%이다.
구해야 할 값: 총요소생산성 $A$의 증가율이다.
주의할 조건: 자본과 노동의 증가율은 각각 생산탄력성 0.3, 0.7로 가중해서 반영한다.

### 사용할 공식

성장회계식은 $g_Y = g_A + 0.3g_K + 0.7g_L$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생산함수 $Y = AK^{0.3}L^{0.7}$에서 총생산 증가율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과 요소투입 증가율의 가중합으로 분해되기 때문이다.

### 계산 과정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5 = g_A + 0.3 \times 9 + 0.7 \times 2$이다.
가중된 요소기여분은 $0.3 \times 9 = 2.7$, $0.7 \times 2 = 1.4$이다.
따라서 $5 = g_A + 2.7 + 1.4 = g_A + 4.1$이므로 $g_A = 5 - 4.1 = 0.9$이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0.9%이다.

NoteBase

### 선지 판단

1번: X. 틀린 표현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0.8%라는 부분이다. 계산 결과는 0.9%이므로 올바르게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0.9%이다.
2번: O. 성장회계식에 대입하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0.9%가 되어 계산 결과와 일치한다.
3번: X. 틀린 표현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1.0%라는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0.9%이며, 이 값은 $0.7 \times 2 = 1.4$를 잘못 계산하거나 합계 4.1을 4.0으로 잘못 본 경우에 나오는 오답이다.
4번: X. 틀린 표현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2.0%라는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0.9%이며, 2.0%는 생산탄력성 0.3과 0.7의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남는 비율처럼 처리할 때 생기는 오답이다.

### 오답 포인트

노동과 자본의 증가율을 그대로 더하면 안 되고 반드시 지수 0.3, 0.7을 곱해야 한다는 점이 함정이다. 특히 3번과 4번은 가중치 계산을 틀리거나 요소기여분을 단순합으로 처리할 때 쉽게 고르게 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콥더글러스 생산함수가 나오면 먼저 성장회계식으로 바꾼 뒤 총생산 증가율에서 요소기여분 $0.3g_K + 0.7g_L$을 뺀다. 증가율 자체를 넣는 것이 아니라 탄력성으로 가중한 뒤 합산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 암기 포인트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총생산 증가율에서 가중된 자본·노동 증가분을 뺀 나머지이다.

NoteBase

**문 6. 담배에 대한 수요함수는 $Q = 10 - P$로 주어졌다. 담배 가격이 4원인 경우 소비자 잉여는?**

① 36

② 18

③ 9

④ 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선형 수요곡선에서 실제 가격보다 높은 지불의사 부분의 삼각형 면적으로 소비자 잉여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수요함수는 $Q = 10 - P$이다.
구해야 할 값: 가격이 4원일 때 소비자 잉여이다.
주의할 조건: 소비자 잉여는 직사각형이 아니라 수요곡선과 가격선 사이의 삼각형 면적이다.

**사용할 공식**

소비자 잉여는 (1)/(2) × 밑변 × 높이이다.
이 문제에서 밑변은 거래량이고 높이는 최고지불의사가격과 실제 가격의 차이이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가격이 4원이므로 수요량은 $Q = 10 - 4 = 6$이다.
2. 수요곡선의 가격절편은 $Q = 0$일 때이므로 $P = 10$이다.
3. 소비자 잉여는 $\frac{1}{2} \times 6 \times (10 - 4) = \frac{1}{2} \times 6 \times 6 = 18$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36은 $6 \times 6$으로 삼각형 면적에서 $\frac{1}{2}$를 빠뜨린 값이다. 올바르게는 소비자 잉여가 $\frac{1}{2} \times 6 \times 6 = 18$이다.
② O: 가격 4원에서 거래량은 6이고 가격절편은 10이므로 소비자 잉여는 수요곡선과 가격선 사이 삼각형 면적인 18이다.
③ X: 9는 밑변 6과 높이 6 중 하나를 절반으로 잘못 줄였을 때 나오는 값이다. 올바르게는 밑변도 6, 높이도 6이므로 소비자 잉여는 18이다.
④ X: 0은 실제 가격이 지불의사 최고가격과 같을 때의 값이다. 이 문제에서는 최고지불의사가격이 10이고 실제 가격이 4이므로 소비자 잉여가 0이 아니라 18이다.

NoteBase

### 오답 포인트

소비자 잉여를 직사각형 면적으로 계산하거나, 가격 4를 바로 높이로 넣는 실수가 자주 나온다. 이 문항의 핵심은 높이가 가격 자체가 아니라 10 − 4라는 점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형 수요의 소비자 잉여 문제는 먼저 실제 가격으로 거래량을 구하고, 다음으로 가격절편을 찾은 뒤, 마지막에 수요곡선과 가격선 사이 삼각형 면적을 계산하면 된다.

### 암기 포인트

소비자 잉여는 거래량 × 가격차의 절반, 즉 수요곡선 위 삼각형 면적이다.

NoteBase

**문 7. 보물-토빈(Baumol-Tobin)의 거래적 화폐수요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거래적 화폐수요는 이자율의 감소함수이다.

② 거래적 화폐수요는 소득의 증가함수이다.

③ 화폐를 인출할 때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증가하면 거래적 화폐수요는 증가한다.

④ 거래적 화폐수요의 소득탄력성은 1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보몰-토빈 거래적 화폐수요이론에서 거래적 화폐수요가 이자율, 소득, 거래비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와 소득탄력성이 얼마인지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보몰-토빈의 거래적 화폐수요는 현금을 자주 찾으러 갈 때 드는 거래비용과 현금을 들고 있을 때 포기하는 이자수익을 함께 고려한 모형이다.
거래적 화폐수요는 이자율이 높을수록 줄고, 소득과 1회 인출 거래비용이 클수록 늘어난다.
대표적으로 평균 화폐보유액은 $M_T^d \propto \sqrt{\frac{Y}{i}}$ 의 형태이므로 소득에 비례하지 않고 소득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이자율은 현금을 보유할 때 포기하는 기회비용이므로 이자율이 오를수록 현금을 적게 보유하려 한다. 따라서 거래적 화폐수요는 이자율의 감소함수라는 설명이 맞다.

② O
소득이 커지면 거래 규모가 커지고 결제에 필요한 평균 현금보유액도 늘어난다. 따라서 거래적 화폐수요는 소득의 증가함수라는 설명이 맞다.

③ O
화폐를 인출하거나 채권을 현금으로 바꿀 때 드는 고정 거래비용이 커지면 자주 인출하는 것이 불리해진다. 그래서 한 번에 더 많이 인출하고 평균 현금보유액을 더 크게 가져가므로 거래적 화폐수요가 증가한다.

④ X
틀린 부분은 '소득탄력성은 1'이라는 표현이다. 보몰-토빈 모형의 거래적 화폐수요는 소득에 정비례하지 않고 대체로 $\sqrt{Y}$에 비례하므로 소득탄력성은 1이 아니라 $\frac{1}{2}$이다. 올바르게는 '거래적 화폐수요의 소득탄력성은 1보다 작으며, 전형적인 보몰-토빈 모형에서는 $\frac{1}{2}$이다'가 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케인스의 단순 거래적 화폐수요처럼 소득에 비례한다고 외우면 ④를 맞는 설명으로 착각하기 쉽다. 이 문항은 보몰-토빈이 거래비용과 이자율을 도입하면서 거래적 화폐수요를 소득의 제곱근 함수로 바꿨다는 점을 묻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거래적 화폐수요에 보몰-토빈이 붙으면 먼저 '이자율에 음(-), 소득에 양(+), 거래비용에 양(+)'을 떠올리고, 소득탄력성은 1이 아니라 $\frac{1}{2}$인지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보몰-토빈 거래수요는 '이자율이 오르면 감소, 소득과 거래비용이 오르면 증가, 소득탄력성은 $\frac{1}{2}$'이다.

NoteBase

**문 8. 시장에 갑, 을 두 기업이 존재하며, 기업 갑, 을은 $S_1$, $S_2$ 전략 중 최선의 의사결정을 하려 한다. <보기>의 표는 두 기업의 게임에 대한 보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괄호 안의 앞의 숫자는 기업 갑의 보수, 뒤의 숫자는 기업 을의 보수를 나타낸다.)**

<보기>

| | | 을 | |
|---|---|---|---|
| | | $S_1$ | $S_2$ |
| 갑 | $S_1$ | (10, 10) | (5, 20) |
| | $S_2$ | (20, 5) | (8, 8) |

① 갑, 을 모두에게 각각 우월전략이 존재한다.

② 균형에서 갑의 보수는 8이다.

③ 갑, 을 간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파레토개선이 가능하다.

④ 위 게임의 균형은 우월전략균형일지는 몰라도 내쉬균형은 아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보수표에서 각 기업의 우월전략, 내쉬균형, 파레토개선 가능성을 읽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갑의 각 행 보수를 열별로 비교해 최적반응을 찾는다.
2. 을의 각 열 보수를 행별로 비교해 최적반응을 찾는다.
3. 두 기업의 최적반응이 만나는 칸을 균형으로 확인하고, 다른 칸과 비교해 파레토개선 가능성을 본다.

**핵심 근거**

갑은 을이 S1을 택해도 20이 10보다 크고, 을이 S2를 택해도 8이 5보다 크므로 S2가 우월전략이다.
을도 갑이 S1을 택해도 20이 10보다 크고, 갑이 S2를 택해도 8이 5보다 크므로 S2가 우월전략이다.
따라서 균형은 (S2, S2)이고 보수는 (8, 8)이다.
또한 (S1, S1)의 보수는 (10, 10)이므로 균형점 (8, 8)보다 두 기업 모두 더 큰 보수를 얻어 파레토개선이 가능하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경제학원론 · 2019 · 10월**

**선지별 해설**

① O
근거 위치: 갑의 행 비교와 을의 열 비교 전체이다.
갑은 을의 선택이 무엇이든 S2에서 더 큰 보수 20, 8을 얻고, 을도 갑의 선택이 무엇이든 S2에서 더 큰 보수 20, 8을 얻는다. 따라서 두 기업 모두 우월전략이 존재한다.

② O
근거 위치: (갑 S2, 을 S2) 칸이다.
두 기업의 우월전략이 모두 S2이므로 균형은 (S2, S2)이다. 이 칸에서 갑의 보수는 8이므로 옳다.

③ O
근거 위치: (S2, S2)와 (S1, S1) 칸 비교이다.
균형점 (8, 8)에서 협조를 통해 (10, 10)으로 이동하면 갑과 을 모두 보수가 증가한다. 따라서 파레토개선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다.

④ X
근거 위치: (갑 S2, 을 S2) 칸과 각 기업의 최적반응 비교이다.
우월전략균형은 각자의 우월전략이 만나는 점이므로 반드시 내쉬균형이기도 하다. 이 게임의 균형은 우월전략균형일 뿐 아니라 내쉬균형이기도 하다.
틀린 표현은 '내쉬균형은 아니다'이다. 올바르게는 '위 게임의 균형은 우월전략균형이며 동시에 내쉬균형이다'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우월전략균형과 내쉬균형을 서로 별개의 개념처럼 떼어 놓는 함정을 둔다. 우월전략균형은 각 플레이어가 상대의 선택과 무관하게 최선인 전략을 택한 결과이므로, 상대 전략이 주어졌을 때도 누구도 일방적으로 바꿀 유인이 없는 내쉬균형을 자동으로 만족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보수표 문제는 먼저 각 행과 열에서 더 큰 보수를 골라 우월전략 또는 최적반응을 찾는다. 그 결과가 만나는 칸을 균형으로 본 뒤, 다른 칸이 두 사람 모두에게 더 큰 보수를 주는지 비교하면 파레토개선 여부까지 한 번에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우월전략이 만나는 점은 항상 내쉬균형이며, 내쉬균형이 항상 파레토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NoteBase

**문 9. 소득분배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서 지니계수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어떤 국가의 소득이 국민 절반에게만 집중되어 있고 그들 사이에서는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면 지니계수의 값은?**

① 1/4

② 1/3

③ 1/2

④ 1

**정답 3번**

###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로렌츠곡선 아래 면적을 이용해 지니계수를 구하는 문제이다.

### 조건 정리

주어진 값: 국민 절반은 소득이 0이고, 나머지 절반이 전체 소득을 균등하게 나누어 가진다.
구해야 할 값: 이 분배상태의 지니계수이다.
주의할 조건: 지니계수와 로렌츠곡선 아래 면적을 구분해야 한다.

### 사용할 공식

지니계수는 완전평등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면적을 전체 삼각형 면적 1/2로 나눈 값이므로 G = 1 - 2 × (로렌츠곡선 아래 면적)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문제에서 특정 소득분배 상태가 서술되어 있으므로 로렌츠곡선의 모양을 먼저 그리고 그 아래 면적으로 지니계수를 바로 계산할 수 있다.

### 계산 과정

1. 하위 50%는 소득이 없으므로 로렌츠곡선은 (0, 0)에서 (0.5, 0)까지 수평이다.
2. 상위 50% 내부에서는 소득이 균등하므로 로렌츠곡선은 (0.5, 0)에서 (1, 1)까지 직선으로 올라간다.
3. 로렌츠곡선 아래 면적은 밑변 0.5, 높이 1인 삼각형의 면적이므로 $(1/2) \times 0.5 \times 1 = 1/4$이다.
4. 따라서 지니계수는 $1 - 2 \times 1/4 = 1/2$이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1/4은 로렌츠곡선 아래 면적이다. 지니계수는 그 면적을 이용해 $1 - 2 \times 1/4$로 계산하므로 1/4 자체가 정답이 아니다. 틀린 값은 1/4이고, 올바르게는 지니계수는 1/2이다.
② X: 1/3은 지니계수 공식의 분모를 잘못 잡거나 면적관계를 혼동할 때 나오는 오답이다. 이 문항에서는 로렌츠곡선 아래 면적이 1/4이므로 지니계수는 1/3이 될 수 없다. 틀린 값은 1/3이고, 올바르게는 지니계수는 1/2이다.
③ O: 로렌츠곡선 아래 면적이 1/4이므로 지니계수는 $1 - 2 \times 1/4 = 1/2$이다. 계산 결과와 일치하므로 옳다.
④ X: 지니계수 1은 소득이 사실상 한 사람 또는 극히 미세한 비율에만 집중되는 극단적 불평등에 가까운 경우이다. 이 문항은 상위 50% 내부에서는 균등분배이므로 그 정도의 극단적 불평등은 아니다. 틀린 값은 1이고, 올바르게는 지니계수는 1/2이다.

### 오답 포인트

로렌츠곡선 아래 면적 1/4을 곧바로 지니계수로 착각하기 쉽다. 또 소득이 절반에게만 몰렸다는 표현만 보고 최대불평등이라고 오해해 1을 고르기 쉽지만, 상위 50% 내부가 균등하다는 조건 때문에 불평등 정도는 그보다 낮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니계수 문항은 먼저 로렌츠곡선의 꺾이는 점을 좌표로 잡고, 그 아래 면적을 구한 뒤 $G = 1 - 2A$를 적용해 판단한다. 보기값이 면적인지 지니계수인지도 마지막에 한 번 더 구분한다.

### 암기 포인트

하위 $p$비율이 소득 0이고 상위 $1 - p$비율이 내부적으로 균등하면 지니계수는 $p$가 된다.

NoteBase

**문 10. 갑과 을 두 사람만 사는 어느 마을이 있다. 이 마을의 공공재(Z)에 대한 갑의 수요는 Z=20-P이고 을의 수요는 Z=32-2P일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공공재의 수량은? (단, 공공재 생산의 한계비용(MC)은 9이다.)**

① 18

② 19

③ 20

④ 21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공공재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공급량을 구하기 위해 개인별 한계편익을 수직합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갑의 공공재 수요는 $Z = 20 - P$, 을의 공공재 수요는 $Z = 32 - 2P$, 한계비용은 9이다.
구해야 할 값: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공공재 공급량 $Z$이다.
주의할 조건: 공공재는 두 사람이 같은 수량을 함께 소비하므로 수요를 수평합하지 않고 각 수량에서의 지불의사를 수직합한다.

**사용할 공식**

개인별 역수요를 구해 사회적 한계편익을 더한 뒤 $SMB = MC$를 적용한다.
P_갑=20-Z, P_을=16-(Z)/(2)
SMB=P_갑+P_을=36-(3)/(2)Z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조건이 같은 수량 $Z$에서 각 개인의 한계편익 합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점이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갑의 수요 $Z = 20 - P$를 역수요로 바꾸면 P_갑=20-Z이다.
2. 을의 수요 $Z = 32 - 2P$를 역수요로 바꾸면 P_을=16-(Z)/(2)이다.
3. 사회적 한계편익은 $SMB = (20 - Z) + (16 - \frac{Z}{2}) = 36 - \frac{3}{2}Z$이다.
4. 효율조건 $SMB = MC$를 적용하면 $36 - \frac{3}{2}Z = 9$이다.
5. 정리하면 $\frac{3}{2}Z = 27$, 따라서 $Z = 18$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O. 계산 결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공공재 공급량은 18이다. $Z = 18$일 때 갑의 한계편익은 2, 을의 한계편익은 7이므로 합은 9가 되어 한계비용과 일치한다.
② X. 19는 효율수량이 아니다. $Z = 19$이면 사회적 한계편익은 $1 + 6.5 = 7.5$로 한계비용 9보다 작아 과다공급 상태이다. 틀린 값 19가 아니라 올바른 값은 18이다.
③ X. 20은 효율수량이 아니다. $Z = 20$이면 사회적 한계편익은 $0 + 6 = 6$으로 한계비용보다 더 작다. 공공재 수요를 수직합해 $SMB = MC$를 맞추면 20이 아니라 18이 된다.
④ X. 21은 효율수량이 아니다. $Z = 21$이면 사회적 한계편익은 $(-1) + 5.5 = 4.5$로 한계비용 9보다 훨씬 작다. 21이 아니라 18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량이다.

**오답 포인트**

사적재처럼 두 사람의 수요량을 수평합하는 실수를 하기 쉽고, 공공재는 같은 수량에서 개인별 한계편익을 더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또한 수요식을 역수요로 바꾸지 않고 바로 더하면 효율조건을 잘못 세우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공재 문제는 먼저 개인별 수요를 역수요로 바꾼 뒤 같은 $Z$에서 한계편익을 수직합하고, 그 합을 한계비용과 같게 두어 효율수량을 구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공공재 효율조건은 같은 수량에서 개인별 한계편익의 합이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점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NoteBase

**문 11. 각국의 필립스 곡선은 $\pi = \pi^e + 4.0 - 0.8u$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른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pi$는 실제인플레이션율, $\pi^e$는 기대인플레이션율, $u$는 실제실업률이다.)**

① 단기필립스곡선은 우하향하며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위로 평행이동한다.

② 잠재 GDP에 해당하는 실업률은 5%이다.

③ 실제실업률이 자연실업률 수준보다 높으면 실제인플레이션율은 기대인플레이션율보다 높다.

④ 5%의 인플레이션율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실제인플레이션율이 3%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실업률은 7.5%가 되어야 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기대인플레이션이 주어진 단기 필립스곡선 $\pi = \pi^e + 4.0 - 0.8u$에서 자연실업률과 실제인플레이션의 방향을 해석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식은 $\pi = \pi^e + 4.0 - 0.8u$이다.
기울기 $-0.8$이므로 단기 필립스곡선은 우하향한다.
자연실업률은 실제인플레이션율과 기대인플레이션율이 같아지는 실업률이다.

**사용할 공식**

자연실업률은 $\pi = \pi^e$를 대입해 구한다.
실제인플레이션과 기대인플레이션의 크기 비교는 $\pi - \pi^e = 4.0 - 0.8u$의 부호로 판단한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문제의 모든 선지가 자연실업률, 기대인플레이션의 이동, 실제인플레이션의 크기 비교를 이 식 하나로 판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자연실업률은 $\pi = \pi^e$일 때이므로 $4.0 - 0.8u = 0$이다. 따라서 $u = 5$이다.
2. $u > 5$이면 $4.0 - 0.8u < 0$이므로 $\pi < \pi^e$이다.
3. ④의 경우 $\pi^e = 5$, $\pi = 3$을 대입하면 $3 = 5 + 4.0 - 0.8u$이다. 따라서 $0.8u = 6$, $u = 7.5$이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O. 식의 기울기가 음수이므로 단기 필립스곡선은 우하향한다. 또한 $\pi^e$가 커지면 같은 $u$에서 $\pi$가 그만큼 커지므로 곡선은 위로 평행이동한다.
② O. 잠재 GDP는 자연실업률에서 달성되므로 $\pi = \pi^e$를 만족하는 실업률을 찾으면 된다. 계산하면 자연실업률은 5%이므로 옳다.
③ X. 실제실업률이 자연실업률보다 높으면 $u > 5$이므로 $\pi - \pi^e = 4.0 - 0.8u < 0$이다. 따라서 실제인플레이션율은 기대인플레이션율보다 낮다. 틀린 표현은 "높다"이고, 올바르게는 "낮다"이다.
④ O. 기대인플레이션율이 5%일 때 실제인플레이션율이 3%가 되려면 $3 = 5 + 4.0 - 0.8u$를 만족해야 한다. 계산 결과 $u = 7.5$이므로 옳다.

### 오답 포인트

③은 자연실업률보다 높은 실업률이면 물가상승 압력이 약해져 실제인플레이션이 기대인플레이션보다 낮아진다는 관계를 반대로 뒤집은 함정이다. $u$가 자연실업률보다 커지면 $\pi - \pi^e$의 부호가 음수가 된다는 점을 놓치면 오답이 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필립스곡선 식이 주어지면 먼저 $\pi = \pi^e$를 대입해 자연실업률을 구한다. 그다음 실제실업률이 그 값보다 큰지 작은지로 $\pi - \pi^e$의 부호를 판단하면 선지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다.

### 암기 포인트

단기 필립스곡선에서 $u = u_n$이면 $\pi = \pi^e$, $u > u_n$이면 $\pi < \pi^e$, $u < u_n$이면 $\pi > \pi^e$이다.

NoteBase

**문 12. 실물경기변동이론(Real Business Cycl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임금은 신축적이나 상품가격은 경직적이라고 가정한다.

② 개별 경제주체들의 동태적 최적화 행태를 가정한다.

③ 경기변동은 시장청산의 결과이다.

④ 공급 측면에서의 생산성 충격이 경기변동의 주요한 원인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실물경기변동이론의 핵심 가정인 가격·임금의 신축성, 동태적 최적화, 시장청산, 생산성 충격 중심 설명을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실물경기변동이론은 경기변동을 명목적 경직성이나 수요 부족보다 생산성 같은 실물 충격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최적 반응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다. 핵심 키워드는 완전경쟁, 가격·임금의 신축성, 시장청산, 기술·생산성 충격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실물경기변동이론은 임금뿐 아니라 상품가격도 신축적으로 조정된다고 본다. 틀린 부분은 "상품가격은 경직적"이라는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임금과 상품가격이 모두 신축적이어서 시장이 계속 청산된다"이다.

② O
실물경기변동이론은 가계와 기업이 시간에 걸쳐 효용과 이윤을 극대화하는 동태적 최적화 행동을 한다고 가정한다. 대표적 경기순환모형이 미시적 기초를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③ O
이 이론에서는 경기변동이 가격 왜곡이나 비시장청산의 결과가 아니라 시장청산의 결과로 나타난다. 경기의 변동 자체가 실물 충격에 대한 효율적 조정 과정이라는 해석과 연결된다.

④ O
실물경기변동이론은 공급 측면의 기술·생산성 충격을 경기변동의 중요한 원인으로 본다. 따라서 생산성 상승이나 하락이 노동공급, 생산, 소비, 투자에 파급되며 경기순환을 만든다고 설명한다.

NoteBase

### 오답 포인트

새고전학파 계열 모형이라는 점을 놓치면 ①의 "상품가격은 경직적"이라는 문구를 새케인즈식 설명과 혼동하기 쉽다. 실물경기변동이론은 경직성보다 신축성과 시장청산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 함정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실물경기변동이론 선지가 나오면 먼저 가격과 임금이 신축적인지, 경기변동을 시장청산의 결과로 보는지, 원인을 기술·생산성 같은 실물 충격에서 찾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반대로 가격 경직성, 수요관리, 비자발적 실업을 중심에 두면 다른 이론일 가능성이 크다.

### 암기 포인트

실물경기변동이론은 "실물충격-신축가격-시장청산"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3. <보기> 중 화폐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은?**

<보기>
ㄱ. 국민소득의 증가
ㄴ. 이자율의 상승
ㄷ. 물가수준의 상승
ㄹ. 기대물가상승률의 증가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화폐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과 감소시키는 요인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화폐수요는 사람들이 거래와 자산보유를 위해 보유하려는 화폐의 양이다. 국민소득과 물가수준이 오르면 거래에 필요한 명목 화폐보유가 늘어나 화폐수요가 증가한다. 반대로 이자율과 기대물가상승률이 오르면 화폐를 들고 있을 기회비용이 커져 화폐수요가 감소한다.

**선지별 해설**

1번: X. ㄱ은 O이지만 ㄷ도 O이므로 ㄱ만 고른 것은 틀리다. 틀린 표현은 '증가 요인이 ㄱ만 있다'는 판단이고, 올바르게는 ㄱ과 ㄷ이 증가 요인이다.
2번: O. ㄱ은 국민소득 증가로 거래수요가 커져 화폐수요를 늘린다. ㄷ은 물가수준 상승으로 같은 실질거래를 위해 더 많은 명목화폐가 필요해져 화폐수요를 늘린다. 반면 ㄴ과 ㄹ은 화폐수요를 줄이므로 ㄱ, ㄷ만 고른 2번이 맞다.
3번: X. ㄴ이 포함되어 틀리다. 이자율이 오르면 채권 등 이자자산의 수익률이 높아져 화폐보유의 기회비용이 상승하므로 화폐수요는 감소한다. 틀린 표현은 'ㄴ이 증가 요인이다'는 부분이고, 올바르게는 ㄴ은 감소 요인이다.
4번: X. ㄹ이 포함되어 틀리다. 기대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화폐의 실질가치 하락이 예상되어 화폐를 덜 보유하려 하므로 화폐수요는 감소한다. 틀린 표현은 'ㄹ이 증가 요인이다'는 부분이고, 올바르게는 ㄹ은 감소 요인이다.

NoteBase

### 오답 포인트

물가수준 상승과 기대물가상승률 상승을 같은 것으로 보면 틀리기 쉽다. 현재 물가수준 상승은 명목 화폐수요를 늘리지만, 기대물가상승률 상승은 화폐보유의 매력을 낮춰 화폐수요를 줄인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변수가 거래를 위해 필요한 명목 화폐보유를 늘리는지, 아니면 화폐보유의 기회비용을 높이는지를 나누어 본다. 소득과 물가수준은 증가 요인이고, 이자율과 기대인플레이션은 감소 요인이다.

### 암기 포인트

화폐수요는 소득·물가수준과는 같은 방향, 이자율·기대인플레이션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NoteBase

**문 14. 노동만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있다. 생산량을 $Q$, 노동량을 $L$이라 할 때, 이 기업의 생산함수는 $Q=\sqrt{L}$이다. 이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단위당 가격이 20이고 노동자 1인당 임금이 5일 때, 이 기업의 최적 노동 고용량은? (단,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은 모두 완전경쟁적이라고 가정한다.)**

① 1

② 2

③ 4

④ 8

**정답 3번**

###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완전경쟁기업의 노동수요 조건인 $p \cdot MPL = w$를 이용해 최적 노동 고용량을 구하는 문제이다.

###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생산함수는 $Q=\sqrt{L}$, 생산물 가격은 20, 노동자 1인당 임금은 5이다.
구해야 할 값: 이윤극대화 노동 고용량 $L$이다.
주의할 조건: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이 모두 완전경쟁이므로 한계수입생산물가치와 임금을 비교한다.

### 사용할 공식

사용할 공식은 $p \cdot MPL = w$이다.
$Q=\sqrt{L}=L^{1/2}$이므로 $MPL=\frac{dQ}{dL}=\frac{1}{2\sqrt{L}}$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완전경쟁기업이 노동을 한 단위 더 고용할 때의 추가수입과 추가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고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 계산 과정

1. 한계생산은 $MPL=\frac{1}{2\sqrt{L}}$이다.
2. 한계수입생산물가치는 $p \cdot MPL = 20 \cdot \frac{1}{2\sqrt{L}}=\frac{10}{\sqrt{L}}$이다.
3. 최적 고용조건 $\frac{10}{\sqrt{L}}=5$를 적용하면 $\sqrt{L}=2$이고, 따라서 $L=4$이다.

NoteBase

### 선지 판단

1번 X: 제시값 1이 틀렸다. $L=1$이면 $p\cdot MPL=10$으로 임금 5보다 크므로 노동을 더 고용하는 것이 이윤을 늘린다. 올바르게는 최적 고용량이 4이다.
2번 X: 제시값 2가 틀렸다. $L=2$이면 $p\cdot MPL=\frac{10}{\sqrt{2}}\approx 7.07$로 여전히 임금 5보다 크므로 고용이 부족하다. 올바르게는 $\sqrt{L}=2$에서 한 번 더 제곱해 $L=4$로 계산해야 한다.
3번 O: $L=4$이면 $p\cdot MPL=\frac{10}{2}=5$가 되어 임금과 정확히 같아진다. 추가고용의 수입과 비용이 일치하므로 최적 노동 고용량은 4이다.
4번 X: 제시값 8이 틀렸다. $L=8$이면 $p\cdot MPL=\frac{10}{\sqrt{8}}\approx 3.54$로 임금 5보다 작아 노동을 너무 많이 고용한 상태이다. 올바르게는 8이 아니라 4에서 고용을 멈춘다.

### 오답 포인트

$\frac{10}{\sqrt{L}}=5$에서 $\sqrt{L}=2$까지만 구하고 $L=2$로 끝내면 2번에 걸린다. 또 평균생산이 아니라 한계생산을 써야 하며, 임금과 비교하는 대상도 $APL$이 아니라 $VMP$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노동수요 계산문제는 생산함수에서 먼저 $MPL$을 구하고, 완전경쟁이면 $p\cdot MPL=w$를 세운 뒤 마지막에 미지수를 끝까지 정리해 제곱이나 단위 누락이 없는지 확인한다.

### 암기 포인트

완전경쟁기업의 최적 노동고용은 가치한계생산과 임금이 같아지는 점에서 결정된다.

NoteBase

**문 15. 경제가 장기균형상태에 있다고 하자. 유가 충격으로 인해 석유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단기 총공급곡선의 이동으로 인해 단기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② 단기균형상태에서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면 실질 GDP가 증가하지만 물가수준의 상승을 피할 수 없다.

③ 단기균형상태에서 통화량을 감소시키면 물가수준이 하락하고 실질 GDP는 감소한다.

④ 생산요소 가격이 신축성을 가질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면 장기 공급곡선이 이동하여 새로운 장기균형이 형성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유가 상승이라는 부정적 공급충격이 단기와 장기의 총공급·총수요 균형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경제는 처음에 장기균형 상태에 있다.
유가 급등은 대표적인 부정적 공급충격이므로 생산비용을 높여 단기 총공급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판단의 핵심은 단기 조정에서는 SRAS와 AD의 이동을, 장기 조정에서는 산출량 복귀가 어느 곡선 이동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구분하는 데 있다.

**핵심 개념**

부정적 공급충격은 생산비용 상승으로 단기 총공급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켜 물가는 올리고 산출량은 줄인다.
장기에서는 생산요소 가격과 임금이 조정되면서 경제가 잠재GDP 수준으로 돌아가는데, 이때 조정의 주체는 장기 총공급곡선이 아니라 단기 총공급곡선이다.

**적용 기준**

이 사례에서는 유가 상승이 총수요 충격이 아니라 총공급 충격이라는 점을 먼저 잡아야 한다.
그 다음 단기에는 물가 상승과 산출량 감소가 함께 나타나는지, 정책으로 총수요를 움직이면 물가와 산출량이 어떻게 바뀌는지, 시간이 지나면 어느 곡선이 조정되는지를 구분해 판단한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O
유가 상승은 기업의 생산비용을 높여 단기 총공급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그 결과 물가는 오르고 실질 GDP는 감소하므로 단기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② O
정부지출 증가는 총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이미 공급충격으로 물가가 오른 상태이므로 산출량을 일부 회복시킬 수는 있지만 물가상승 자체를 피할 수는 없다.

③ O
통화량 감소는 총수요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그러면 물가수준은 낮아지지만 총수요가 줄어 실질 GDP도 함께 감소한다.

④ X
틀린 표현은 '장기 공급곡선이 이동하여'이다. 이 문항의 장기 조정은 생산요소 가격과 임금의 조정으로 단기 총공급곡선이 이동하면서 실질 GDP가 잠재GDP로 복귀하는 과정으로 설명한다. 올바르게는 '시간이 지나면 단기 총공급곡선이 이동하여 새로운 장기균형이 형성된다'이다.

### 오답 포인트

④는 '장기'라는 말 때문에 장기 총공급곡선이 움직인다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의 핵심 함정은 장기균형에 도달하는 과정과 장기 총공급곡선 자체의 이동을 혼동하게 만드는 데 있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급충격 문제는 먼저 충격이 총공급인지 총수요인지를 구분한 뒤, 단기에는 물가와 산출량의 동시 변화를 보고, 장기에는 실질 GDP가 잠재GDP로 돌아갈 때 어떤 곡선이 조정되는지를 따져 판단한다.

### 암기 포인트

유가 급등은 SRAS 좌측 이동, 단기에는 물가 상승·산출량 감소, 장기 복귀는 LRAS가 아니라 SRAS 조정이다.

NoteBase

**문 16. 총수요확장정책이 장기뿐 아니라 단기에서도 물가만 상승시킬 뿐 실업률 감소에는 기여하지 못한다는 정책 무력성 명제와 가장 관계 깊은 이론은?**

① 합리적기대이론
② 화폐수량설
③ 내생적성장이론
④ 항상소득이론

**정답 1번**

###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정책무력성 명제를 새고전학파의 합리적 기대이론과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 핵심 정리

합리적기대이론: 경제주체가 정책을 예상하면 임금과 물가가 즉시 조정되어 예상된 총수요 확대는 단기에도 실업률을 낮추지 못한다고 본다.
화폐수량설: 화폐량 증가가 물가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장기적 화폐-물가 관계를 강조한다.
내생적성장이론: 기술, 인적자본, 연구개발 같은 내부 요인이 지속적 성장을 만든다고 본다.
항상소득이론: 소비는 일시소득보다 장기적으로 예상되는 항상소득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 선지별 해설

1번 O: 정책무력성 명제는 예상된 총수요확장정책이 단기에도 산출량이나 고용을 늘리지 못하고 물가만 올린다는 주장인데, 이는 합리적 기대이론의 대표적 결론이다.
2번 X: 틀린 부분은 화폐수량설을 정책무력성 명제의 직접 이론으로 연결한 점이다. 화폐수량설은 화폐량과 물가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지, 예상된 정책이 단기 실업률까지 낮추지 못한다는 명제를 핵심으로 삼지는 않는다. 올바르게는 정책무력성 명제는 합리적기대이론과 연결된다.
3번 X: 틀린 부분은 내생적성장이론을 경기안정화 정책의 단기 무력성과 연결한 점이다. 내생적성장이론은 기술축적, 인적자본, 지식의 외부효과처럼 장기 성장의 원천을 설명한다. 올바르게는 이 선지는 장기 성장결정요인과 관련된 이론으로 고쳐야 한다.
4번 X: 틀린 부분은 항상소득이론을 정책무력성 명제와 연결한 점이다. 항상소득이론은 소비자가 일시적 소득변화보다 항상소득을 기준으로 소비를 결정한다는 소비이론이다. 올바르게는 소비의 기간 간 평활화와 관련된 이론으로 이해해야 한다.

### 오답 포인트

문장에 '물가만 상승'이라는 표현이 있어 화폐수량설로 바로 가기 쉽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물가상승 자체보다 예상된 정책이 단기 실업률도 줄이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단기 무력성은 합리적 기대이론의 표지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거시문장에서 '예상된 정책', '단기에도 산출량·고용 불변', '물가만 조정'이 함께 나오면 새고전학파의 합리적 기대이론을 먼저 떠올리면 된다.

**암기 포인트**

정책무력성 명제 = 합리적 기대이론 = 예상된 정책은 물가만 움직이고 실업률은 못 줄인다.

NoteBase

**문 17. 자연독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규모의 경제가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다.

② 평균비용이 한계비용보다 크다.

③ 생산량 증가에 따라 한계비용이 반드시 하락한다.

④ 가격을 한계비용과 같게 설정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자연독점의 성립 조건과 비용구조, 특히 평균비용 하락과 한계비용 하락을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자연독점은 큰 고정비와 규모의 경제 때문에 한 기업이 시장 전체를 공급할 때 평균비용이 더 낮아지는 독점이다. 핵심은 관련 생산범위에서 평균비용이 하락한다는 점이며, 한계비용이 반드시 계속 하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규모의 경제가 크면 생산을 한 기업으로 집중할수록 평균비용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자연독점이 발생할 수 있다.

② O
자연독점에서는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 평균비용이 한계비용보다 크다. 이는 평균비용 곡선이 하락 중이면 한계비용이 평균비용 아래에 있다는 뜻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한계비용이 반드시 하락한다"는 표현이다.
자연독점의 필요조건은 평균비용의 하락이지, 한계비용의 필연적 하락이 아니다. 실제로는 큰 고정비 때문에 평균비용은 내려가더라도 한계비용은 일정하거나 상승할 수도 있다.

④ O
자연독점에서 가격을 한계비용과 같게 정하면 보통 $P = MC < AC$가 되어 총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자연독점의 핵심을 한계비용의 움직임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선지이다. 자연독점은 평균비용이 계속 내려가는 구조가 본질이며, 한계비용 하락은 그 자체로 필수조건이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연독점 문제에서는 먼저 한 기업 생산이 더 싼 구조인지, 즉 평균비용이 관련 생산범위에서 하락하는지를 본다. 그다음 평균비용과 한계비용의 관계를 점검하면 $AC$ 하락 구간에서는 $MC < AC$이므로 $P = MC$ 가격설정 시 적자가 날 수 있음을 바로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자연독점은 "규모의 경제로 $AC$ 하락, 그래서 보통 $MC < AC$"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8. 미국 달러화 대비 갑, 을, 병국 화폐의 가치 변동률이 각각 -2%, 3%, 4%일 때 가장 옳은 것은?**

① 갑국 화폐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상승했다.

② 을국 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상승했다.

③ 1달러당 병국 화폐 환율이 상승했다.

④ 병국 화폐 1단위당 을국 화폐 환율이 하락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달러 대비 화폐가치 변동률이 주어졌을 때 자국통화/달러 환율의 방향과 교차환율의 방향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 갑국 화폐가치: -2%
- 을국 화폐가치: 3%
- 병국 화폐가치: 4%

구해야 할 내용
- 어느 화폐가 가장 크게 상승했는지
- 을국 제품의 달러 표시 가격 변화
- 1달러당 병국 화폐 환율의 방향
- 병국 화폐와 을국 화폐의 교차환율 방향

**사용할 공식**

화폐가치 $V$와 1달러당 자국통화 환율 $E$는 역수 관계이므로 $E = 1/V$이다.
병국 화폐 1단위당 을국 화폐 환율은 두 화폐가치의 비율이므로 R_병→을=V_병/V_을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문항은 달러 대비 각국 화폐가치 변화가 주어졌을 때 역수인 달러환율과 두 나라 사이의 교차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함께 묻고 있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화폐가치 자체만 보면 갑은 2% 하락, 을은 3% 상승, 병은 4% 상승이므로 가장 크게 상승한 것은 병국 화폐이다.
2. 1달러당 병국 화폐 환율은 화폐가치의 역수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병국 화폐가치가 4% 상승하면 1달러당 병국 화폐 수량은 하락한다.
3. 병국 화폐 1단위당 을국 화폐 환율은 $V_{병}/V_{을}$이므로 변화율은 대략 $1.04/1.03 - 1 \approx 0.0097$이다. 따라서 약 0.97% 상승한다.
4. 을국 화폐가치가 3% 상승했으므로 을국 제품의 자국통화 가격이 같다면 달러로 환산한 가격은 상승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갑국 화폐가치는 2% 하락했다. 가장 크게 상승한 것은 4% 오른 병국 화폐이다. 틀린 표현은 '갑국'이며, 올바르게는 '병국 화폐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상승했다'이다.

② O
을국 화폐가치가 3% 상승했으므로 같은 을국통화 가격의 제품을 달러로 바꾸면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을국 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은 상승한다.

③ X
병국 화폐가치가 상승하면 병국 화폐 1단위의 달러가치가 커진다는 뜻이므로 1달러로 살 수 있는 병국 화폐 수량은 줄어든다. 틀린 표현은 '상승했다'이며, 올바르게는 '1달러당 병국 화폐 환율이 하락했다'이다.

④ X
병국 화폐는 4%, 을국 화폐는 3% 상승했으므로 병국 화폐가 을국 화폐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해졌다. 따라서 병국 화폐 1단위당 을국 화폐 환율은 상승한다. 틀린 표현은 '하락했다'이며, 올바르게는 '병국 화폐 1단위당 을국 화폐 환율이 상승했다'이다.

**오답 포인트**

③은 화폐가치 상승과 1달러당 자국통화 환율 상승을 같은 방향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④는 두 나라 화폐가 모두 상승해도 상승폭이 더 큰 병국 화폐 기준의 교차환율은 올라간다는 점을 놓치기 쉬운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달러 대비 각 화폐가치의 부호와 크기를 정리한다. 다음에 1달러당 자국통화 환율은 역방향으로, A국 화폐 1단위당 B국 화폐 환율은 두 화폐가치의 비율로 판단하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화폐가치가 오르면 1달러당 그 화폐의 수량은 줄어든다. 교차환율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른 화폐가 강세로 나타난다.

NoteBase

**문 19. 한 국가의 무역수지가 흑자인 경우,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Y > C + I + G$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을 의미한다.)

ㄴ. 국내 투자 > 국민저축

ㄷ. 순자본유출 > 0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개방경제의 국민소득 항등식과 저축-투자 관계, 순자본유출과 순수출의 대응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무역수지 흑자는 순수출 $NX$가 0보다 큰 상태이다.

개방경제의 국민소득은 $Y = C + I + G + NX$이므로 $NX > 0$이면 $Y > C + I + G$가 된다.

국민저축은 $S = Y - C - G$이고 개방경제에서는 $S = I + NX$이므로 $NX > 0$이면 $S > I$이다.

순자본유출은 해외에 순투자한 금액으로, 개방경제 항등식에서 순수출과 같아 $NCO = NX$이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경제학원론 · 2019 · 10월**

### 선지별 해설

① X

- ①은 ㄱ, ㄴ의 조합인데 ㄱ은 맞고 ㄴ은 틀리므로 오답이다.
- ㄱ은 무역수지 흑자이면 $NX > 0$이어서 $Y = C + I + G + NX$에서 $Y > C + I + G$가 되므로 옳다.
- ㄴ의 틀린 부분은 "국내 투자 > 국민저축"이라는 비교방향이다.
- 실제로는 $S = I + NX$이고 $NX > 0$이므로 국민저축이 국내 투자보다 크다. 올바르게는 "국민저축 > 국내 투자"이다.

② O

- ②는 ㄱ, ㄷ의 조합이고 두 문장 모두 옳으므로 정답이다.
- ㄱ은 무역수지 흑자이면 순수출이 양수이므로 성립한다.
- ㄷ은 순자본유출과 순수출이 같으므로 $NX > 0$인 흑자국에서는 순자본유출도 0보다 커서 옳다.

③ X

- ③은 ㄴ, ㄷ의 조합인데 ㄴ이 틀리므로 오답이다.
- ㄷ만 옳고 ㄴ은 저축과 투자의 크기를 반대로 서술했다.
- 올바르게는 "ㄱ, ㄷ"이다.

④ X

- ④는 ㄱ, ㄴ, ㄷ의 조합인데 ㄴ이 틀리므로 오답이다.
- ㄱ과 ㄷ은 옳지만 ㄴ의 비교방향이 반대이므로 셋 다 옳은 것은 아니다.
- 올바르게는 "ㄱ, ㄷ"이다.

### 오답 포인트

무역수지 흑자를 보면 많은 수험생이 자금이 많이 들어오므로 국내 투자가 저축보다 크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흑자는 $NX > 0$이고 곧 $S - I > 0$이라는 뜻이므로 저축이 투자보다 큰 상태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무역수지 흑자·적자를 보면 먼저 $NX$의 부호를 정한다. 그다음 $Y = C + I + G + NX$, $S = I + NX$, $NCO = NX$를 차례로 대입하면 소득식, 저축-투자 비교, 순자본유출의 방향이 한 번에 정리된다.

### 암기 포인트

무역흑자이면 $NX > 0$, 따라서 $Y > C + I + G$, $S > I$, $NCO > 0$이다.

NoteBase

**문 20. 폐쇄경제하의 국민소득결정에 관한 IS-LM모형이 <보기>와 같다. 생산물시장과 화폐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룰 때 균형이자율과 균형국민소득은?**

<보기>
소비함수 $C = 200 + 0.8(Y - T)$
투자함수 $I = 260 - 20R$
정부지출 $G = 140$
조세 $T = 0.375Y$
물가수준 $P = 100$
화폐공급 $M^s = 20{,}000$
화폐수요 $\frac{M^d}{P} = 100 + 0.2Y - 20R$
(단, $Y$는 국민소득, $R$은 이자율을 나타낸다.)

① 균형이자율: 4, 균형국민소득: 900
② 균형이자율: 5, 균형국민소득: 900
③ 균형이자율: 4, 균형국민소득: 1,000
④ 균형이자율: 5, 균형국민소득: 1,000

**정답 4번**

###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세가 비례세일 때 소비함수를 정리해 IS곡선을 만들고, 실질화폐공급과 화폐수요를 같게 두어 LM곡선을 만든 뒤 두 식을 연립해 균형이자율과 균형국민소득을 구하는 문제이다.

###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소비함수는 $C = 200 + 0.8(Y - T)$, 투자함수는 $I = 260 - 20R$, 정부지출은 140, 조세는 $T = 0.375Y$, 물가수준은 100, 명목화폐공급은 20,000, 화폐수요는 $\frac{M^d}{P} = 100 + 0.2Y - 20R$이다.
구해야 할 값: 균형이자율 $R$과 균형국민소득 $Y$이다.
주의할 조건: 화폐시장은 명목화폐공급을 물가수준으로 나눈 실질화폐공급으로 맞춰야 하고, 조세가 정액세가 아니라 소득의 37.5%라는 점을 먼저 반영해야 한다.

### 사용할 공식

생산물시장 균형은 $Y = C + I + G$, 화폐시장 균형은 $\frac{M^s}{P} = \frac{M^d}{P}$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문제에서 생산물시장과 화폐시장이 동시에 균형일 때의 값, 즉 IS-LM 동시균형을 묻고 있기 때문이다.

NoteBase

### 계산 과정

1. 조세를 소비함수에 대입하면 $Y - T = Y - 0.375Y = 0.625Y$이므로 소비는 $C = 200 + 0.8 \times 0.625Y = 200 + 0.5Y$이다.
2. 생산물시장 균형식은 $Y = (200 + 0.5Y) + (260 - 20R) + 140$이므로 $Y = 600 + 0.5Y - 20R$, 따라서 $0.5Y = 600 - 20R$, $Y = 1200 - 40R$이다.
3. 실질화폐공급은 $\frac{M^s}{P} = \frac{20000}{100} = 200$이다. 따라서 화폐시장 균형식은 $200 = 100 + 0.2Y - 20R$이고, 정리하면 $0.2Y - 20R = 100$, $Y - 100R = 500$, 즉 $Y = 500 + 100R$이다.
4. 두 식 $Y = 1200 - 40R$, $Y = 500 + 100R$를 연립하면 $1200 - 40R = 500 + 100R$, $700 = 140R$, $R = 5$이다.
5. $R = 5$를 대입하면 $Y = 1200 - 40 \times 5 = 1000$이다. 따라서 균형이자율은 5, 균형국민소득은 1,000이다.

### 선지별 해설

① X: 제시값은 $R = 4$, $Y = 900$인데 계산 결과는 $R = 5$, $Y = 1000$이다. 두 값이 모두 틀렸다. 올바르게는 균형이자율이 5이고 균형국민소득이 1,000이다.

② X: 이자율 5는 맞지만 국민소득 900이 틀렸다. $R = 5$를 IS식 $Y = 1200 - 40R$에 대입하면 $Y = 1000$이므로 올바르게는 5, 1000이어야 한다.

③ X: 국민소득 1,000은 맞지만 이자율 4가 틀렸다. 연립 결과는 $R = 5$이므로 올바르게는 5, 1000이다. $R = 4$는 IS식과 LM식을 동시에 만족하지 못한다.

④ O: 연립한 균형점이 $R = 5$, $Y = 1000$이므로 제시값과 정확히 일치한다.

### 오답 포인트

가장 흔한 실수는 두 가지이다. 첫째, 조세 $T = 0.375Y$를 반영하지 않고 소비를 $200 + 0.8Y$로 두면 IS식이 잘못 나온다. 둘째, 화폐공급 20,000을 그대로 쓰고 물가수준 100으로 나누지 않으면 LM식이 틀어진다. ②는 이자율만 맞춘 뒤 국민소득 재대입을 누락한 경우에, ③은 국민소득만 보고 이자율을 잘못 읽은 경우에 쉽게 고르기 쉬운 선지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IS-LM 계산형은 먼저 조세를 반영해 소비함수를 정리하고 IS식을 만든다. 그다음 명목화폐공급을 물가로 나누어 실질화폐공급을 만든 뒤 LM식을 세운다. 마지막으로 두 식을 연립해 $R$을 구하고, 다시 한 식에 대입해 $Y$를 확정하면 된다.

### 암기 포인트

비례세가 있으면 먼저 $Y - T$를 정리하고, 화폐시장은 반드시 $\frac{M^s}{P} = \frac{M^d}{P}$로 맞춘다.

NoteBase